



전쟁 보도와 소셜미디어에서의 폭력 콘텐츠 규범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전쟁 저널리즘의 변천

전쟁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과 안위를 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널리즘에서도 취재·보도의 일반적 원칙에서 예외적 기준과 관행을 만들어왔다. 그래서 전쟁보도는 언론이 진실 추구라는 저널리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특히 자국 군대나 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전쟁의 경우엔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라고 간파했다.

전쟁 보도에서 언론이 직면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군사적 필요성을 앞세운 정부 및 군의 보도 통제에 맞서 취재의 자유와 알 권리를 중시하는 언론의 대립과 갈등이다. 언론의 전쟁 보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국익인가? 아니면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과 같은 언론 고유의 가치인지를 묻는 상황이다.

BBC의 중군기자 케이트 애디(Kate Adie)는 “자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취재·보도의 원칙은 심각한 시련을 겪게 된다. 과연 어떤 대상에 충실해야 할까? 추상적 의미의 진실 원칙에 충실해야 할까, 아니면 전쟁 수행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충실해야 할까? 공포에 떨거나 어찌면 호전적인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결정사항에, 또 이의를 제기한 탓으로 배제된 소수파들에게, 아니면 전선에서 생명을 무릅쓰겠다고 나선 젊은 남녀들에게 충실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¹⁾ 애디는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전쟁의 성격 그 자체다”라고 말한다. 전쟁 보도는 바람직한 저널리즘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다른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B.C. 490년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마라톤전투 결과 전달이 저널리즘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전쟁 보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수많은 개인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전쟁은 뉴스 가치가 높은 대상이자 독자들의 관심도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저널리즘이 총력을 쏟는 취재 대상이고 언론사들이 핵심 역량을 투입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역이다. 전쟁 보도의 방법은 기술과 취재방법의 발달에 따라 지속 변모해왔으며, 언론은 사진과 영상을 도입하는 등 전쟁 현장을 좀더 생생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경로를 밟아왔다.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년)은 사진 기술의 등장으로 참혹한 전장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기 시작한 계기다. ‘최초의 거실 전쟁’으로 불린 남북전쟁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기사와 토론이 전쟁 보도의 중심이 되는 저널리즘 관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전장에 몰려들고 보도가 쏟아지면서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보도에 불만을 품고 〈시카고 타임스〉를 폐쇄하는 등 전쟁 보도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1898년 스페인-아메리카전쟁은 미국의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선정적 허위보도 경쟁을 벌임으로써 언론이 전쟁을 앞장서서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¹⁾ 스튜어트 앨런, 바비 젤리저 (2007). 저널리즘과 전쟁. 〈전쟁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심각한 피해를 드러냈다. <뉴욕저널>과 <뉴욕월드>는 선정적 전쟁 보도 경쟁으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서도 발행부수와 사세를 몇 배로 키우며 선정성의 대가를 누렸다.²⁾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은 전선에 투입된 기자들의 속보와 사진을 통해 전장의 이미지가 신속하게 보도되면서, 전쟁의 실상이 급속하게 전세계에 전달되며 여론을 형성했다. 영국과 미국은 전쟁 특파원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해 기자들이 군무원처럼 군복을 입고 전장을 돌아다니게 했다. 세계 각국의 특파원들이 모여들어 전장을 취재하게 됨에 따라 언론에 적용되는 검열규정도 상세하게 만들어졌다.

종군취재와 임베드 취재

한국전쟁(1950~1953년)은 TV로 보도된 최초의 전쟁이고, 베트남전쟁(1955~1975년)은 방송매체가 전쟁 보도를 주도하게 된 전쟁이며 기자들이 자유롭게 전황을 취재하면서 전쟁 보도의 독립성을 획득한 계기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은 전쟁 보도에 군사 검열이 없었던 최초이자 마지막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1970년대 베트남전 종군기자는 2천여 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전쟁 보도의 황금기이면서 가장 많은 기자가 희생된 극한의 취재 현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전쟁 보도는 미군의 네이팜탄 오폭 참사 등 전황과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전쟁 이미지들을 보도하며 미국내 반전 여론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오랜 기간 CBS 앵커로 활동한 미국의 저명 언론인 월터 크롱카이트는 미군의 협조를 받아 북베트남 정글 지대를 폭격하는 전투기를 탑승하는 등 전장 취재를 한 뒤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진실을 보도했다. 군의 기대와 어긋나게 크롱카이트는 자신이 목격한 베트남전의 무의미함과 참혹함을 방송 보도로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내에서 베트남전 반전 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1991년 걸프전은 바그다드 현지에 파견된 CNN 특파원을 통해 다국적연합군의 이라크 폭격 상황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대가 열렸다.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는 광대역 인터넷과 인터랙티브 지도 등 각종 쌍방향 정보기술을 통해 훨씬 상세하고 다면적으로 전쟁의 모습을 전달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

2) 이창호·이영미·정중석·김용길 (2007).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여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제40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마트폰, 상업위성, 드론, 소셜미디어가 대중화한 환경에서 치러지는 ‘초연결 시대의 전쟁’으로 불리며 전쟁 보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론 악화가 주요 미국의 철군 배경으로 거론되는 베트남전에서 확인되듯, 전쟁 중에는 언론 보도와 여론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쟁 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전장에 접근해 독자적인 직접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 접근권과 전황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군 당국과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군이 비밀 작전을 펼치고 언론 접근을 차단하면 전쟁 보도가 군과 정부의 발표 보도에 머무르기 쉽다. 언론에 대한 군의 비협조적 태도는 사실과 다른 오보를 만들거나 근거없이 비판적 보도를 양산하는 배경이다. 미군은 1983년 그라나다를 전격 침공할 때는 취재기자 없이 작전을 수행했고, 1989년 파나마를 침공할 때는 미군에 우호적인 10여 개 언론사만을 군 용기에 태워 취재 편의를 제공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전쟁은 전세계 600여 명의 기자들을 미군 운송수단에 동승시켜 군사작전 수행을 취재하도록 한 임베드 프로그램(embed program)을 본격화한 전쟁이다. 임베드 프로그램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언론인이 접근해 생생하게 보도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가 제한되고 군이 보여주는 상황 위주로 전쟁을 보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판이 높다. 임베드 프로그램은 미군이 베트남전 이후 언론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한 전쟁 보도 프로그램이다.³⁾ 또한 기자가 군이 제공하는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투하는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유대를 맺게 되면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게 될 우려가 생긴다. CBS 기자로 베트남전을 취재한 제프 그랜닉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임베딩 취재에 대해 “기자들은 전투가 아니라 진실을 캐내고 정직하게 취재, 보도를 하기 위해 전장에 간 것이지만 일단 부대에 배속되거나 임베딩 참여자로 선정되면 이런 취재·보도는 어려워진다”며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에 동조하는 스톡홀름 신드롬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⁴⁾ 영국 <더 타임스>의 미디어 담당 기자인 브라이언 맥아더도 “임베딩 취재 방식은 저널리스트들을 군에 부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⁵⁾

3) 하워드 텀버 (2007). 뉴스벨류의 포로?: 저널리스트와 전문성 그리고 전사의 일체화. <전쟁보고>, 서울: 한국언론재단.

4) 앞의 논문.

5) 리처드 킴블 (2007). 초군국주의 시대의 정보전쟁. <전쟁보고>, 서울: 한국언론재단.

BBC의 전쟁보도 가이드라인

긴급 상황에서 혼란과 갈등을 막는 방법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해당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영국 BBC는 상세한 상황별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쟁과 테러 상황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사 저널리스트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⁶⁾

이 가이드라인에서 BBC는 “전세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 서비스에 접속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맥락과 분석을 포함해 광범위한 견해와 의견을 제공받기를 기대한다”며 적절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BBC가 전쟁과 테러리즘 및 긴급상황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 **정확성과 공정성** : 전쟁이나 테러와 재난 등 비상사태를 다루는 초기 단계에서, 특히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확인한 정보와 자료의 출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보도가 검열 또는 모니터링되는지 또는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보도를 유예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수용자 의견 및 조정** : 전쟁 시기에는 작전 계획의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 공식 통보받기 이전에 사상자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루머를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이용자들의 반응을 관리하기 어려운 소셜미디어에 BBC 기사를 게재하는 게 적절한 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 **언어 사용** : 테러리즘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렵고 감정적인 주제이므로 가치 판단이 담긴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를 근거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함으로써 독자에게 그 행동의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폭탄을 터뜨린 사람’, ‘가해자’, ‘총격가해자’, ‘유괴범’, ‘반란군’, ‘군인’ 등과 같이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를 써야 한다.
- **피해자 확인** :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을 때, 가족과 유족은 BBC 보도를 통해 알게 되기보다 관련 당국을 통해 알림을 전달받아야 한다.
- **위협과 장난** : 폭탄 위협 등의 경우 우선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외부의 공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세부적 보안 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BBC. Section11: War, Terror and Emergencies, (Editorial Guidelines). URL: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elines/>



초연결 시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당국과 언론이 공개하지 않아도 누구나 전쟁과 관련한 정보를 직접 확보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현장에 있는 시민이 거대 언론의 종군기자나 군사 당국보다 생생하고 긴박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한 전황 보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보편화한 시대에서 달라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드러냈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각종 사건 현장에서 개인들이 찍어 올리는 영상과 메시지의 힘이 막강해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틱톡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15초 안팎의 짧은 동영상을 손쉽게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쇼트 폼’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해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와이어드>는 “전쟁을 위해 설계된 도구”라고 평했다. <와이어드>는 “틱톡의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제공하는데 지금은 전쟁 영상에 관한 욕구가 넘쳐난다”고 보도했다.⁷⁾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전쟁 관련 영상은 넘쳐나지만, 신뢰도는 매우 의심스럽다. 현재의 전황이 아닌 과거 영상이나 자극적인 사진 공유를 통해 조회수를

7) Tom Simonite (2022. 3. 28). TikTok’s Black Box Obscures Its Role in Russia’s War. (Wired). URL: <https://www.wired.com/story/tiktok-algorithm-russia-war/>

높여, 광고 수익을 노린 시도도 많다. 틱톡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우크라이나 관련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는 이러한 의도적인 허위 영상을 이용한 사기극이 많았다. 오래 전 분쟁이나 군사 훈련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 거대한 폭발이나 치열한 총격전의 가짜 오디오를 더빙한 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형태다. 많은 이용자가 시청하면 광고 수익을 얻거나 기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기극이 진행됐다. BBC에 따르면, 이런 방식을 사용한 계정 중 하나는 한달도 안된 기간 동안 3천만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당시 상당수 라이브 스트리밍은 유튜브 영상에서 가져온 짧은 클립들을 재생했는데, 2017년 촬영된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영상을 편집한 것이었다.⁸⁾

우크라이나전쟁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전파되는 과정은 거대 기술기업들과 이용자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거대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으며, 과거와 같은 '단순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전쟁의 참상을 빠르게 알리며 세계 여론을 우크라이나 편으로 결집시켰지만 허위정보의 위험성 또한 증대시켰다. 온라인과 콘텐츠의 승리가 현실과 전쟁의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2011년 아랍의 봄 운동에서 이미 확인됐다. 관심 높은 플랫폼에 이용자가 몰리면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학살 중계

소셜미디어에서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술기업들로선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며 신뢰를 쌓아가려면 기존 사업관행 등 포기해야 할 게 많은, 고민스러운 길이다. "기술기업들은 지정학에 휩쓸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없이 전세계의 소통을 독점하면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런 국제적 위기 속에서 승산없는 상황이 됐다."⁹⁾ 페이스북에서 선거 중립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로스앤젤레스 베르그루엔 연구소 연구원인 야엘 아이젠스테트가 <뉴욕타임스>에 밝힌 내용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

8) 사안 사르다라자데 (2022. 4. 28). 우크라이나 전쟁: 틱톡 가짜 영상, 수백만 조회수 기록. <BBC 코리아>. URL: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250042>

9) Adam Satariano & Sheera Frenkel (2022. 2. 28). Ukraine War Tests the Power of Tech Giants.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2022/02/28/technology/ukraine-russia-social-media.html>



한 정책과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책임을 피해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관행이 도전받는 상황이다.

소셜미디어 이용자 증가와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 확대는 허위 전쟁 영상뿐만 아니라 총기난사 등 학살과 혐오 영상 전파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새로운 어뷰징의 배경이 되고 있다.

2022년 5월 14일 미 동부 뉴욕주 버펄로시의 한 마트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백인우월주의를 신봉하는 18세 남성이 흑인 밀집지역으로 차를 몰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총에 맞은 13명 중 11명은 흑인, 나머지 2명은 백인이다. 범인은 태연하게 범행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방탄헬멧에 고프로 카메라를 달고 범행을 게임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생중계했다. 트위치쪽은 영상이 올라온 지 2분 만에 그의 계정과 영상을 삭제했지만, 2분짜리 동영상은 복제돼 순식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만 삭제되기 이전에 3백만 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총기 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재앙이다. 2019년 51명이 목숨을 잃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 총기 난사 사건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17분간 생중계됐다. 2019년 10월 독일 작센안할트주 할레 유대교회당 앞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도 트위치에서 약 30분간 실시간 중계됐고, 실시간 시청자 수가 2천 명을 넘었다. 2015년에도 미국 버지니

아주 브리지위터에서 한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2022년 버펄로 총기난사 생중계는 혐오 범죄 확산에 악용되는 소셜미디어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범인은 범행 생중계를 위한 플랫폼으로 트위치를 선택했다.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이후 대표적 소셜미디어들이 폭력 콘텐츠 정책을 강화한 것이 트위치 선택의 배경이다. 유튜브는 계정을 인증하고 구독자 50명을 확보한 이후부터 모바일 생중계가 가능하지만, 트위치는 이런 제한이 없어 누구나 생중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광고 모델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소셜미디어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초연결시대의 폭력 대응 가이드라인은?

소셜미디어에 허위 전쟁 영상을 올리거나 잔혹한 학살 장면을 생중계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돈벌이, 인기, 인종 혐오 등 개인별로 다양하다. 공통된 점은 이러한 현상이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이 거대해지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새로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강력한 플랫폼을 다양한 동기로 어부지기는 방법이 발달하는 데 비해서, 그에 걸맞은 대응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기업들도 자신들이 제공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이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두 달 뒤인 2019년 5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 ‘크라이스트처치 선언’이 출범했다. 온라인에서 테러와 증오표현, 폭력 선동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정보기술 기업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아마존 등 정보기술 기업들과 50여개국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적 폭력이나 증오 표현의 확산을 막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선언 이전인 2017년 6월에도 구글·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트위터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은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GIFCT)’이라는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한 바 있다.

크라이스트처치 선언은 테러와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도 제

시했다.¹⁰⁾ 그중에는 소규모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준을 제공하는 방안과 언론이 극단주의 콘텐츠를 증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표현과 참여가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구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크라이스트처치 선언은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적 목적의 콘텐츠를 막기 위한 국제적 조치의 조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터넷의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업계 주도의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GIFCT)’이건, 50여개국 정부가 참여한 ‘크라이스트처치 선언’이건 문제는 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제적 조치에 나서려 해도 현행 인터넷의 특성상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개발을 통한 각종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술적 조치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인터넷은 딥웹과 텔레그램처럼 익명성과 우회로가 존재하고 끊임없이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 기술과 교육 등 다층적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관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크라이스트처치 선언에서도 “왜곡된 테러와 폭력적인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항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 보도와 극단주의적 콘텐츠가 가이드라인 없이 유통되는 무법천지 같은 현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무기력하면서도 희망적인 결론이다. 즉각적이고 확실한 대응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10) 크라이스트처치 선언 홈페이지. URL: <https://www.christchurchcall.com>